

나를 보내소서

이사야 6:1-8

㉞ Ice-Breaker

‘메르스’로 인해 나라가 뒤숭숭합니다. 당신의 지난 한 주는 어땠나요?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나요? 서로의 삶을 나누어 봅시다.

이사야가 부름 받던 때는 ‘웃시야 왕이 죽던 해’였습니다(6:1). 절대 권력을 누리던 웃시야 왕의 죽음은,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닌 나라 전체가 죽음과 같은 슬픔에 잠기는 사건입니다. 이 같은 상황에서 이사야는 부름 받습니다.

㉞ 말씀과 나눔

1. 이사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(1-5절).

- 1)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?
 - 1절: 내가 본즉 주께서 ()에 앉으셨는데
 - 2절: ()이 모시고 섰는데
 - 4절: 문지방의 터가 ()하며 ()에 ()가 충만하더라
- 2) 이사야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?
 - 3절: 만군의 여호와여 ()
- 3)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?
 - 5절: 그때에 내가 말하되... 나는 ()이요

(나눔1)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시대에 이사야를 불러, 하늘에 놀인 보좌와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, 성전에 여전히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. 이를 본 이사야는, 절망만을 보며 원망하던 백성들의 범죄를 깨닫고 ‘화로다!’라고 고백하게 됩니다.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각이 생긴 것입니다.

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까?
그렇다면 그 때, 혹은 시간이 지난 뒤, 충만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되었던 부분은 없었나요?

2. 이어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(6-8절).

- 1) 이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(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지각)은 어떻게 되었습니까?
 - 6-7절: 그 스랍 중의 하나가... ()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()에 대며 이르되... ()이 제하여졌고 ()가 사하여졌느니라

2) 이 모든 과정의 결국은 이사야를 어디로 이끄니까?

▪ 8절: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()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
되 ()

(나눔2) 문자 이면의 참의미를 발견하는 자, 현상 너머의 진실을 읽는 자, 하늘에 놓인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다. 단순한 확신 때문이 아닌,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'제가 가겠습니다'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?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까? 그것은 무엇입니까? 당신에게만 특별히 보이고 들려,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?

㉞ 함께 기도

하나님.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이제는 주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.